

편 집 실 에 서

□ 안녕하십니까?! 2010 庚寅年 새해를 맞아 가네 건안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계간 『외교』에 보내 주신 애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0년 신년호 『외교』 제92호 편집후기 서두를 엮니다.

□ 먼저 『외교』 제92호 권두언 “변화의 시대, 한국의 진로” 홍순영 외교협회 회장님과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올해에 미래를 전망하며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위하여” 제하의 옥고를 주신 권철현 주일대사님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그 외에 유석렬 본 외교지 편집위원의 “6자회담 재개와 남북한관계 전망”, 외교통상부 김은중 유럽국장의 “리스본조약의 발효와 한·EU관계”, 최원기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의 올해 11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 의미와 과제”, 최근까지 스위스에서 근무하고 귀국한 장철균 본부대사의 “바람직한 외교관 像—徐熙”와 현재 미국 Monterey 연구소 방문연구원으로 연수중인 권희석 외교통상부 전 군축비확산과장의 “The Fallacy of the DPRK’s Uranium Enrichment Program”을 게재하였습니다.

□ 그리고 네 분(유종현/조기성/김승호/이경구)의 칼럼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황장엽)/“지구촌에 새긴 KOICA의 발자국”(박대원) 등 두 편의 신간을 소개하였습니다. 자료 란에서는 지난 10.10 베이징에서 가진 한·중·일 3국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영문)과 11.3~11.7 내한한

몽골외교협회 대표단(단장:Terbish Chimeddorj 대사)의 “Foreign Policy of Mongolia” 연설문(11.4, 협회 대강당)을 수록하였습니다.

□ 『외교』 제92호 편집은 홍순영 회장, 현희강 부회장 겸 편집인, 문병록, 박창일, 사부성, 유석렬, 이원영, 정석권, 최영철, 황용식 편집위원,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국(이윤국장)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한편, 편집위원회에서는 2009년 12월로 최영철 편집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 하였고 새로이 문병록 회원(전 주 피지대사)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그동안 외교지 편집에 애쓰신 최영철 편집위원께 감사드립니다.

계간 외교 2010년 제92호

발 행 · 2010년 1월 1일

발행인 · 홍 순 영
편집인 · 현 희 강
발행소 · (사)한국의외교협회
인쇄소 · (주)마스타상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80
Tel : 585-6475(편집실)
Fax : 585-6204
E-mail : editorial@kcfr.or.kr
http : //www.kcfr.or.kr